

대명사의 성별단서에 담긴 사회인지적 표상*

이 재 호†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삼인칭 대명사의 성별단서가 참가자의 성과 정서적 평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밝히기 위해 두 개의 실험이 실시되었다. 실험 1은 SOA 150ms에서 대명사를 점화하여 정서 단어의 명명반응을 참가자 성에 따라 측정하였다. ‘그’ 점화가 ‘그녀’ 점화에 비해서 명명시간이 빨랐으며, 두 대명사와 정서 단어의 이원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남녀 모두 성별단서 ‘그’ 점화는 긍정과 부정의 차이를 보였지만 ‘그녀’ 점화는 차이가 없었다. 실험 2는 세 변인의 효과를 SOA 1000ms에서 관찰하였다. 참가자 성, 대명사 성별, 및 정서단어의 삼원상호작용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참가자 여자가 ‘그녀’ 점화에서 긍정과 부정 단어의 차이를 보였다. 두 실험에서 대명사 ‘그’는 정서적 평가의 긍정적 촉진 효과가 관찰되었고, ‘그녀’는 여자 참가자에서 부정적 억제 효과가 관찰되었다. 대명사의 성별단서는 참가자 성과 정서적 평가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참가자 성, 삼인칭 대명사, 점화효과, 시간경과, 사회 인지, 정서적 평가, 명명과제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8126).

† 교신저자: 이재호,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번지
E-mail: leejaeho@kmu.ac.kr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빠르게 발생하는 심적 과정은 무엇일까? 대인의 지각적 정보와 동시에 사회적 정보의 파악이다. 그 사회적 정보의 하나가 성별(gender) 정보이다. 성별 정보의 처리 과정은 매우 자동적이고 암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의식이나 통제가 무척이나 어렵다고 알려졌다(Banaji & Hardin, 1996; Fazio & Olson, 2003; 이재호, 방희정, 2003). 지각 대상의 성별 정보의 파악은 그 대상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하는 정보로 사용된다. 지각 대상, 성별 단서, 선호도의 평가는 사회적 인지의 표상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된다. 이들 표상의 응집성은 사회인지의 균형-일치성 이론으로 설명되고 있다(Cvencek, Greenwald, & Meltzoff, 2012; Greenwald & Banaji, 1995; Greenwald, et al., 2002).

성별 정보의 파악은 직접적인 대상 지각으로 처리되지만 언어적인 단서에 의해서 표상을 형성할 수도 있다. 언어는 세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의미에는 사회적 의미도 함께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본 정보(자신, 집단, 성별)는 언어적인 문법적 단서(인칭, 수, 성별)와 대응되어 있다. 언어적 문법적 단서는 사회적 기본 정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Kunda, 2000). 일인칭과 이인칭 대명사는 각각 자신과 타인을 활성화시키며(예; 이재호, 2012a,b), 우리와 그들의 복수 대명사는 각각 내집단과 외집단의 범주를 활성화시킨다(예; Perdue, et al., 1990). 그리고 사회적 단서인 성별 정보는 삼인칭 단수 대명사에 의해서 활성화 된다(예; Banaji & Hardin, 1996).

대명사의 언어적 단서가 사회인지의 표상을 활성화시킨다는 경험적 연구들이 있었

다. Housley, Claypool, Garcia-Marques, 및 Mackie (2010)는 인칭 대명사('we')와 비인칭 사물 대명사('it')가 인칭 정보의 범주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이재호(2012a,b)는 일인칭 대명사('나')와 이인칭 대명사('너')가 자신과 타인의 대비적 표상을 형성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Perdue, Dovidio, Gurtman, 및 Tyler(1990)는 대명사의 수 단서인 'we' 혹은 'them'이 내집단과 외집단 표상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Banaji와 Hardin(1996)은 명사의 성별 의미가 대명사의 통사적 단서를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의사(doctor)'라는 역할명사를 점화하여 '그(he)' 혹은 '그녀(he)'를 판단하게 하였을 때 '그'가 '그녀'보다 반응시간이 빠르다는 증거를 얻었다. 이들 연구는 언어에 함의된 의미 단서가 사회적 인지의 정보처리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 연구는 대명사의 인칭과 수 단서의 자동성과 정서적 평가 연구에 기반하여(예; Perdue, et al., 1990; Housley, et al., 2010; 이재호, 2012a,b) 대명사의 성별단서에도 정서적 평가가 함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Banaji와 Hardin(1996)이 처음으로 대명사의 성별단서의 자동적 활성화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지만, 이 연구가 성별단서의 사회인지적 표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선 추가되어야 할 요인들이 있었다. 첫째, 이 연구가 성별단서의 의미적 활성화에 대한 증거만 제시하였기 때문에 정서적 평가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며, 둘째, 이 연구가 사용한 과제는 의식적 처리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 성별이 대명사 성별단서와 비대칭적 상호작용을

야기하였다. 이는 사회인지적 표상이 복잡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그 역동성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대명사의 성별단서가 사회인지의 표상에 작용하는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 성, 성별단서, 및 정서적 수준의 세 독립변인을 체계적으로 조작하였다. 특히 정서적 평가는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조건에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De Houwer, Hermans, D., Spruyt, 2001; Klauer, et al., 1977). 그러므로 명명과제와 시간경과적 접근(실험 1 SOA 150ms, 실험 2 SOA 1000ms)을 적용하여 정서적 평가의 역동적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사회인지이론과 대명사의 성별단서

인지일반의 심적 표상의 이론에서는 주인공, 시공간, 인과관계, 의도 및 동기 등이 표상의 중요 요소임을 가정하였다(예; Zwaan & Radvansky, 1998). 이들 요소들의 응집적인 표상이 마음의 의미 내용이며 과정이라고 하였다. 사회인지의 이론에서는 그 모형이 자신-내 집단-평가의 균형적 일치성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예; Greenwald, et al., 2002; Perdue, et al., 1990). 자신은 주인공으로 대응되며, 시공간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대응되며, 인과관계나 의도 및 동기는 정서적인 평가와 대응될 수 있다. 사회인지의 표상은 요소들 간의 정서적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은 자신의 평가를 집단의 평가에 일치시키려는 경향성이 있으며, 그러한 경향성은 대부분 자동적이며 암묵적 수준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졌다(Bargh & Olson, 2003; Greenwald, et al., 2002).

인지일반의 표상에 비해서 사회인지의 표상은 사람 혹은 인간에 대한 표상이 그 중심에

있고, 그러한 표상이 언어적인 문법 체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범주 자체는 개념적 표상이지만 그 표상의 표현은 언어이며, 언어는 개념적 표상의 효율성과 또 다른 상징적 수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명사는 인칭, 성별, 수 등의 통사적 단서만을 지니고 있는 기능어이다. 대명사의 이런 단서들은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거나, 개인과 집단을 구분하거나,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즉 인칭의 범주는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 등으로 분류되며 각 인칭은 수에 따라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으로 구분된다. 이들 대명사의 통사적인 범주는 사회인지의 표상에 직접 연관될 수 있다. ‘나-너-그’의 인칭 표현이 그것이다. 대명사 나-너는 개인적 수준의 인칭 대명사이며, ‘나-자신’ 혹은 ‘너-타인’의 사회적인 관계적 표상을 형성한다. 반면에 ‘그’는 삼인칭 단수 대명사이다. 이 대명사는 일인칭과 이인칭에 비해서 독특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삼인칭 단수는 성별단서를 지니고 있다. 즉 성별범주의 남성과 여성에 대응하는 ‘그(he)’ 혹은 ‘그녀(she)’이다. 삼인칭 단수가 지니고 있는 통사적 단서인 성별 정보 또한 사회적 표상을 형성하는 단서가 된다(예; Banaji & Hardin, 1996; 이재호, 2006). 이재호(2006)는 참가자의 성과 성별 속성의 일치성이 점화효과에 작용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Banaji와 Hardin(1996)은 성별 단어가 대명사 성별을 점화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즉 자신-집단-정서적 평가가 사회인지적 표상의 구성체라고 본다면(Greenwald, et al., 2002), 자신(남자)-성별(남성)-평가(긍정)는 응집적인 표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회인지적 표상처럼 삼인칭 대명사의 성별단서의 표상도 자신-사회범주-정서적 평가의 표상을 형

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대명사 성별단서의 사회인지적 표상

사회인지의 연구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의 정서적 평가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일반적으로 내집단은 긍정적 평가를 표상하며 외집단은 부정적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Perdue 등(1990)은 무의미 철자의 선호도 판단에 대명사가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점화자극으로 무의미 철자(예; 'xeh')를 제시하고 인칭 대명사에 조건화를 시켰다. 즉 무의미 철자를 내집단(예; 'us') 대명사나 외집단(예; 'them') 대명사에 조건화를 시킨 다음 무의미 철자에 대한 선호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집단 대명사와 짝 지워진 철자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외집단 대명사와 짝 지워진 대명사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더욱이 Perdue 등(1990)은 집단 대명사를 점화자극으로 제시한 다음 정서적 단어에 대한 판단과제를 실시한 결과 내집단 대명사는 긍정적 정서 단어가 부정적 정서 단어보다 빠른 반응을 보였고, 외집단은 그 반대 결과를 얻었다. 또한 Housley 등(2010)은 '우리(we)'와 '그것(it)'의 대명사를 비교하였다. 그들은 내집단 대명사의 언어적 표현이 긍정적 단서를 제공하여 참가에게 친숙성을 제공한다고 가정하였다. 그 결과 내집단을 기술하는 대명사인 '우리'가 통제 집단을 기술하는 '그것'에 비해서 친숙성 판단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명사의 사회인지적 표상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았다. 그중에서 Banaji와 Hardin(1996)은 일반 명사와 대명사의 성별단서가 사회적 범주의 의미적 처리에 작용하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그들은 성별 속성을 지닌 일반 명사의 전형적 성별(예; '의사'='남성')이 대명사의 성별과의 일치성 판단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명사의 성별과 대명사의 성별('he' 혹은 'she')이 일치하는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조건에 비해서 대명사 성별의 판단시간이 빠름을 보고하였다. 특히 일치성 효과는 점화 명사와 목표 대명사 사이의 시간간격이 300ms인 조건에서 관찰되었다. 이는 명사의 성별 속성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조건이며 반응시간의 차이는 그 속성이 대명사의 처리를 촉진시켰다는 것이다. 일반 역할명사의 성별의미의 활성화가 성별 대명사의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대명사의 성별단서가 정서적 표상에도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인지와 정서의 통합적 표상이 사회적 태도이며 사회인지적 표상의 형상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 Cvencek, Greenwald, & Meltzoff, 2012; Greenwald, et al., 2002).

정서적 평가의 자동성과 과제의 관계

사회인지의 표상에 대한 연구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의 하나가 과제 간의 수렴성이다(예; De Houwer, Hermans, D., Spruyt, 2001). Banaji와 Hardin(1996)의 연구도 비록 짧은 SOA 조건을 적용하여 성별 정보의 자동적 활성화 과정을 관찰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과제는 자동적 과정에만 민감하지 않는 의식적 판단과제를 적용하였다. 이 연구가 사용한 과제는 대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한 성별 판단이 요구되는 과제나(실험 1) 대명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과제를 사용하였다(실험 2). 두 과제 모두 점화단어의 제시가 매우 짧았지만(SOA 300ms) 목표단어를 판

단하는 동안에 목표단어에 대한 의식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 사용된 과제는 심적 처리에 대한 민감성에서 차이를 보인다(이재호와 김성일, 1998). 예를 들어 이재호(2012a)의 연구에서 보면, 어휘판단과제는 대명사 ‘나’와 ‘너’ 접화에 대해서 긍정단어의 반응에는 차이를 보였지만, 부정단어는 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반면에 명명과제는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 모두 반응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즉 어휘판단과제는 목표단어에 대한 단어의 의미적 판단을 요구하는 과제이다. 단어에 대한 의식적 판단 전략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반면에 명명과제는 판단보다는 발성만 요구하므로 의식적이고 의미적 판단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제의 차이가 대명사의 유형과 정서적 평가의 상호작용에 다른 양상으로 작용한 것이다. 즉 정서적 평가의 자동성에 민감한 과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서적 평가의 촉진과 억제 과정

성별단서의 정서적 평가 과정은 활성화 확산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이론은 개념 마디 간의 정보의 확산은 활성화된 마디의 촉진적 활성화가 확산되는 과정과 함께 촉진적 활성화된 마디는 주변의 마디에 억제적 확산 과정도 수행한다고 하였다(예; Collins & Loftus, 1975; Neely, 1977; 1991). 촉진은 정보 간의 의미가 일치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억제는 의미가 일치하지 않거나 정보가 너무 유사한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Neely(1997; 1991)는 활성화 촉진은 자동적이고 암묵적으로 수행되지만 억제는 전략적이고 의식적으로 수행된다고 하였으며, Blanton과 Stapel (2008)은 동화는 자발적

이고 자동적으로 수행되지만 대비는 인지적 자원이 요구되는 통제 과정으로 보았다. 활성화 확산의 촉진과 억제의 과정을 사회인지에 적용하면 ‘자신-긍정’ 정보는 활성화가 촉진되지만 ‘자신-부정’ 정보는 촉진이 덜되거나 억제가 된다고 예측된다.

그러나 Perdue 등(1990)은 점화과제(priming task)를 적용한 결과, 점화와 목표의 의미적 강도가 반응을 촉진시키지만, 항상 자극의 반응을 촉진시키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두 자극의 의미적 일치 정도가 너무 강하거나(예; 이재호와 이정모, 2000), 너무 대비적이면 오히려 반응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예; Glaser & Banaji, 1999; Stapel & Koomen, 1998; Stapel, & Winkielman, 1998). ‘자신-긍정’ 표상에 ‘자신-부정’ 정보가 입력되면 두 정보는 서로 대치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상위 수준으로 통합하거나 대비 정보에 대한 처리의 역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Lee & Lee, 2005). 이런 이유로 자신이나 내집단의 부정 정서는 자신이나 내집단에 강한 대비를 야기하기 때문에 긍정 정서보다 반응이 느려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성별단서의 정서적 평가는 어떠한가? 자신-타인(‘나’-‘너’) 혹은 내집단-외집단(‘우리’-‘그들’)의 사회적 범주의 표상에서 평가적 표상은 ‘자신-긍정’, ‘타인-부정’, 혹은 ‘내집단-긍정’, ‘외집단-부정’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자신이나 내집단은 긍정 속성에 대한 반응이 부정 속성에 대한 반응보다 촉진되어야 하며, 타인이나 외집단은 부정 속성에 대한 반응이 긍정 정보에 대한 반응보다 촉진되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이나 내집단에 대한 긍정-부정의 반응 차이나 타인이나 외집단의 부정-긍정의 반응 차이를 촉진적 기제만으로 설명되는가 하는 문

제가 있다. 활성화 확산의 이론에 따르면 자신-부정과 타인-긍정은 축진이 덜되기도 하지만 억제될 수도 있다. 성별단서의 정서적 평가는 ‘그’ 혹은 ‘그녀’는 삼인칭 단수이며, 타인을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대명사이다. 삼인칭 대명사의 성별단서의 정서적 평가는 참가자 성과 성별단서의 일치성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자신의 성(sex)과 대명사의 성별(gender)의 일치성이 정서적 평가에 작용하는지이다. 즉 자신의 성과 긍정적 평가는 일치 조건이며 축진적 과정이 발생하며 자신과 부정 평가는 불일치 조건이며 억제 과정이 발생한다. 따라서 자신 성-일치가 자신 성-불일치에 비해서 반응이 촉진된다고 예측된다.

정서적 평가의 비대칭성

자신 혹은 내집단과 타인 혹은 외집단은 각각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 대응되는 표상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사회인지의 응집적 표상을 형성한다. 균형-일치성 이론의 기본 가정이다. Greenwald와 Banaji(1995)는 인종이나 성별의 평가적 표상이 긍정-부정 차원으로 구성됨을 강조하였고 긍정 속성은 긍정 속성에 자동적으로 점화되며 부정 속성은 부정 속성에 자동적으로 점화된다고 하였다. 두 속성이 일치되면 교차되는 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많아야 한다. 이는 사회적 정보는 인지와 정서 차원이 함께 작용한다는 주장이며 동시에 긍정과 부정 속성이 서로 대칭적으로 표상된다고 보는 입장이다(예; Banaji & Hardin, 1996; Fazio, et al., 1986). Banaji와 Hardin(1996)의 연구에서도 일반 명사와 대명사의 성별 속성의 일치성 효과가 대칭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칭적 표상이 일반적이지만은 않았

다. Klauer, Rossmagel, 및 Musch(1997)는 성격 특질(trait)의 일치조건(예, ‘긍정-긍정’ 혹은 ‘부정-부정’)과 불일치조건(예, ‘긍정-부정’ 혹은 ‘부정-긍정’)의 점화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SOA 0-100ms¹⁾에서는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다른 SOA(SOA 150ms-1200ms)에서는 ‘긍정-긍정’ 조건이 ‘부정-부정’ 조건에 비해서 평가 판단이 빨랐으며, 이재호 등(2000)의 명명과제(naming task)²⁾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긍정-긍정’ 단어쌍이 ‘부정-부정’ 단어쌍에 비해서 목표단어의 명명시간이 빨랐다. 또한 긍정성 효과는 SOA 150-250ms에서만 관찰되었고. 이후의 SOA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일치성 효과가 사라졌다. Glaser와 Banaji(1999)는 긍정이나 부정 평가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평가 일치성이 반대로 나타나는 역점화(reverse priming) 효과를 관찰하기도 하였다. 이는 점화-목표 자극의 조건이 사회범주에 항상 대칭적으로 상호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증거들이다.

De Houwer, Hermans, 및 Spruyt(2001)은 정서적 점화 효과가 점화-목표 자극 간의 의미적

1) SOA(stimulus onset asynchrony)는 점화자극이 제시되어 다음 목표자극이 제시되는 시점까지의 사이 시간이다. SOA는 자동과 통제 과정을 조작할 수 있는 실험통제의 절차이다. 정서적 평가의 효과가 관찰되는 자동적 과정은 SOA 300ms이내이다(De Houwer, et al., 2001; 이재호와 김성일, 1998).

2) 명명과제(naming task)는 목표자극의 단어를 음성으로 발성하는 과제이다. 목표자극이 제시된 시점에서 발성이 마이크에 입력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 종속측정치다. 이 과제는 단어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지 않으며, 반응시간이 짧고, 변산도 적으며, 오류도 극히 낮다(이재호와 김성일, 1998).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일치성 효과가 관찰된다는 것은 정서적 속성도 의미적 속성처럼 점화효과가 관찰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서적 점화 효과는 의미적 점화 효과에 비해서 관찰 조건이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즉 연구 과제와 SOA 조건이 정서적 점화의 효과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다른 과제보다는 명명과제를 사용하고 SOA도 0-150ms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정서적 점화 효과가 보다 잘 관찰된다고 하였다(예; Klauer, et al., De Houwer, et al., 2001; Spruyt, et al., 2004; 이재호, 2012a, b). 이런 결과는 대명사의 정서적 점화효과가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상호작용이 대칭적이지만은 않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Perdue 등(1990)은 집단 대명사('we'와 'they')의 정서적 평가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지만 완벽한 대칭적인 상호작용이 아니었다. 즉 내집단 대명사가 외집단 대명사에 비해서 긍정적 평가의 촉진 효과는 관찰되었지만 부정적 평가의 억제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즉 정서적 점화효과와 관찰 시점의 민감성과 대칭적인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문제가 대명사 성별단서의 점화효과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예; 이정모와 이재호, 2004).

연구문제

사회인지의 균형-일치성 이론은 자신-집단-정서가 사회인지의 기본적 표상이며, 자신이 속한 집단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응집적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Greenwald, et al, 2002). 그러면 균형-일치성 이론이 대명사의 성별단서에도 확장될 수 있는 가하는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성별단서는 삼인칭 대명사에만 적용된다. 삼인칭 대명사는

타인을 지칭하는 대명사이다. 따라서 삼인칭 대명사의 성별단서와 정서적 평가의 표상은 자신이나 내집단의 속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Banaji와 Hardin(1996)은 명사와 대명사의 성별단서가 의미적 점화를 촉진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즉 점화단어의 성별과 대명사의 성별이 일치하는 조건이 불일치하는 조건보다 목표단어의 대명사 반응시간을 빠르게 하였다. 더욱이 이 연구는 참가자 성 즉 자신의 성 변인을 추가한 결과 참가자 성과 대명사 성별 그리고 의미적 일치 조건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참가자 성, 남자는 점화단어의 성별과 무관하게 남성 대명사가 여성 대명사에 비해서 빠른 반응을 보였지만, 여자는 점화단어의 성별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여성 대명사가 남성 대명사에 비해서 빠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참가자 성, 대명사 성별, 그리고 성별의 의미적 일치성 간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은 성별 일치성 판단과제에서보다 대명사 판단과제에서 두드러졌다.

Banaji와 Hardin(1996)이 성별의 의미적 일치성 효과를 관찰하였지만 균형-일치성 이론에서 주장한 자신-집단-정서적 평가의 표상을 관찰한 것은 아니다. 사회인지의 표상이 자신과 사회 범주 즉 집단과 정서적 평가의 긍정성의 응집성이라면 참가자 성-대명사 성별-정서적 평가의 표상 관계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De Houwer 등(2001)의 주장처럼 의미적 점화효과도 정서적 점화효과에 적용될 수 있고, Klauer 등(1997)은 정서적 점화효과는 매우 한정된 조건에서만 관찰되는 자동적이고 암묵적이 특성이 강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이재호(2012a,b)는 정서적 평가에 대한 민감성이 사용되는 과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신-집단-정서의 사회인지적 표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 연구는 2개의 실험을 통해서 대명사의 성별단서에 함의된 사회인지적 표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첫째, Banaji와 Hardin(1996)의 의미적 점화과제를 평가적 점화과제로 전환하였다. 즉 그들의 점화조건('doctor' 혹은 'nurse')과 목표조건('he' 혹은 'she')을 대명사 전화조건('그' 혹은 '그녀')과 정서적 평가조건('배려' 혹은 '독선')으로 전환하였다. 둘째, 그들이 사용한 일치성 판단이나 대명사 판단 과제 대신에 참가자의 판단이 요구되지 않는 명명과제를 적용하였다(Banaji & Hardin, 1996; De Houwer, et al., 2001; 이재호, 2012a,b). 셋째, 자극제시조건도 보다 정서적 평가의 자동적인 특성에 민감하도록 SOA를 조절하였다. 실험 1에서는 SOA 150ms를 적용하여 자동적 평가 과정을 관찰하고자 하였으며 실험 2에서는 SOA 1000ms를 적용하여 정서적 평가의 의식적 통제 과정의 효과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Bargh, et al., 1992; 이재호, 2012a,b).

실험 1: SOA 150ms 조건

실험 1은 사회인지의 균형-일치성 이론(balanced congruency theory)에 기반하여 참가자 성과 대명사 성별의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들 효과가 정서적 평가의 일치성으로 일반화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삼인칭 대명사인 '그'와 '그녀'를 참가자 성(sex)에 점화자극으로 제시한 다음 정서 단어인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에 대한 명명시간을 SOA 150ms에서 측정하였다. Banaji와

Hardin(1996)의 의미적 일치성 효과는 점화단어('doctor')와 목표단어('he')의 성별단서 즉 의미적 속성의 일치성 효과이며 SOA 300ms 조건에서 관찰되었다.

삼인칭 단수의 성별단서에 정서적 평가도 함의되어 있는가? 균형-일치성 이론에 따르면 자신-집단-정서의 일치성 효과를 예측한다. 따라서 '남자-남성단서-긍정'과 '여자-여성단서-긍정'은 '남자-여성단서-긍정'과 '여자-남성단서-긍정'이나 '남자-남성단서-부정'과 '여자-여성단서-부정'에 비해서 반응시간의 잇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명사의 성별과 정서적 평가의 일치성 효과가 있다면 참가자 성, 대명사 성별, 그리고 정서적 평가의 삼원상호작용이 예측된다.

그러나 참가자 성과 대명사 성별의 일치성 효과가 대칭적이지 않다면 그 상호작용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Aidman & Carroll, 2003; Rudman, Greenwald, & McGhee, 2001; 이재호, 2006). 그 원인은 참가자 성에 따른 성별 단서의 표상 차이이다. Banaji와 Hardin(1996)는 참가자가 남자이면 항상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대명사 'he'에 대한 반응이 빨랐고, 여자는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대명사가 점화단어의 성과 일치하는 조건에서 반응이 빨랐다. 이는 남자와 여자의 참가자 성이 성별에 대한 표상을 달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대명사 성별의 대칭성이다. 한국어와 영어의 삼인칭 단수의 성별단서는 언어가 생성된 시점에서부터 구분되지 않았다. 한국어도 지시사는 '이, 그, 저' 로만 사용되었다. 이들 지시사에는 성별(gender) 단서가 없었고, '그'가 성별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 '그녀'는 순수한 한국어에서 나타난 대명사는 아니다. 한국어의 성별 일치성 효과가 대

칭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가? 참가자 성(자신의 성)과 대명사의 성별단서의 일치성이 정서적 평가에 작용한다면 세 변인의 복잡한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

방 법

참가자

계명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160명이 참가하였다. 이중 남자 학생은 68명이었으며, 여자 학생은 98명이었다. 모든 참가자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었으며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실험 점수를 부여하였다.

실험설계

독립변인은 참가자 성(남자, 여자), 대명사 성별(남성, 여성), 그리고 정서 수준(긍정, 부정)이었다. 참가자 성은 피험자 간 변인이었으며 대명사 성별과 정서 수준은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이 연구는 2×(2×2) 혼합요인설계가 적용되었다.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부록 1에 제시되었다. 점화조건에 사용된 단어는 ‘그’ 혹은 ‘그녀’였다. ‘그’ 혹은 ‘그녀’를 점화단어로 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사를 첨부한 재료를 만들었다. ‘그’와 ‘그녀’ 각각 10개씩의 어절을 만들었다. 정서 단어는 긍정 단어 10개와 부정 단어 10개로 구성되었다. 각 단어는 이재호(2012a)의 연구에서 사용된 단어였으며, 10명

의 대학원생에게 정서의 긍정-부정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실험 단어의 빈도는 300만 어절에서 얻어진 자료이며 정서 단어 간의 빈도는 각각 긍정 단어가 평균 241(표준오차 137)이었으며 부정 단어가 평균 41(표준오차 27)이었다[$F(1,18)=3.37$, $MSe=94786.40$, $p=.08$]. 빈도의 순위는 긍정 단어가 평균 933(표준오차 91)이었으며 부정 단어는 1096(표준오차 32)이었다[$F(1,18)=2.83$, $MSe=46651.09$, $p=.11$]. 실험 단어의 정서 평가는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척도 점수에서 1점은 가장 긍정이며, 3점은 보통, 5점은 가장 부정이었다. 긍정단어는 평균이 1.7(표준오차 0.8)점이었고 부정단어는 평균 4.1(표준오차 0.1)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9)=164.29$, $MSe=1.73$, $p=.001$].

실험절차

실험은 참가자가 컴퓨터에서 개인별로 실시되었다. 실험의 지시문은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었고, 참가자가 스스로 키보드를 사용하여 지시문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실험 절차는, 먼저 컴퓨터 화면에 ‘*****’ 표시가 750ms동안 제시되었고, 그 표시가 사라지면 점화단어가 100ms동안 제시되었다. 점화단어가 제시된 후 50ms가 경과된 다음 목표단어가 제시되었다(SOA 150ms). 자극 제시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통제되었다. 지시문을 숙지한 다음,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점화단어가 나타나면 그 단어의 제시 여부만 확인하게 하였으며, 점화 단어 이후에 목표단어가 화면에 제시되면 그 목표단어를 소리내어 읽게 하였다(명명과제).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반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강조하였다. 실험의 시행 간의 시간 간격

은 1000ms였다. 실험자는 본 실험이 실시되기 전에 실험절차의 이해와 과제를 숙지시키기 위해서 참가자에게 6번의 연습시행을 실시하였다. 연습시행에 사용된 단어는 본 실험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였으며, 의미적으로도 무관한 단어였다. 본 실험의 시행절차는 연습시행과 동일하였다. 실험조건의 점화-목표 단어쌍은 20쌍이었다. 삽입조건의 단어쌍도 20쌍으로 구성하였다. 삽입조건은 점화 조건의 대명사는 동일하였지만 목표 조건이 숫자이었다(예; '11') 참가자는 모두 40개의 점화-목표 자극쌍에 대한 반응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는 IBM/PC 펜티엄 기종이었으며, 실험 프로그램은 Direct RT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결과 및 논의

실험 1은 명명과제를 적용하여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반응시간이 250ms 이하인 반응과 표준편차 3이상인 1000ms 이상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은 전체 반응 3200개 중에서 48개 이었으며, 제외 반응은 전체 반응의 1.5%였다. 참가자 성, 대

명사 성별, 정서 수준에 따른 목표단어의 명명시간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1에 제시되었다. 목표단어의 명명시간은 변량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명사의 성별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158)=14.34$, $MSe=721.37$, $p=.000$]. 대명사 '그' 점화(511ms, 4.95ms)가 '그녀' 점화(519ms, 4.77ms)에 비해서 8ms가 빨랐으며, 정서 수준의 주효과가 경계수준을 보였다 [$F(1,158)=3.67$, $MSe=911.16$, $p=.058$]. 긍정단어(513ms)가 부정단어(518ms)에 비해서 5ms가 빨랐다. 그리고 대명사 성별과 정서 수준의 이원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158)=7.90$, $MSe=908.36$, $p=.006$],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점화는 긍정단어가 부정단어보다 12ms 빨랐지만, '그녀' 점화는 둘 간의 차이가 없었다. 참가자 성과 대명사 성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F(1,67)=2.89$, $MSe=721.37$, $p=.091$]. 남자 참가자는 '그' 점화(507ms)가 '그녀' 점화(519ms)보다 12ms 빨랐지만 [$F(1,91)=14.54$, $MSe=649.37$, $p=.000$], 여자 참가자는 '그' 점화(514ms)와 '그녀' 점화(519ms)의 차이가 없었다.

실험 1은 참가자 성-대명사 성별-정서적 평가의 상호작용을 SOA 150ms에서 살펴보았다.

표 1. 참가자 성, 대명사 성별, 및 정서 수준에 따른 명명시간의 평균(ms)

참가자 성	대명사 성별	정서 수준	
		긍정 단어	부정 단어
남자	'그' 점화	502 (7.77)	513 (8.13)
	'그녀' 점화	520 (8.01)	518 (7.33)
여자	'그' 점화	509 (6.68)	520 (6.99)
	'그녀' 점화	520 (6.89)	518 (6.32)

()안은 표준오차

균형-일치성 이론으로 예견되었던 참가자 성, 대명사 성별, 그리고 정서적 평가의 삼원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남성 대명사 ‘그’가 여성 대명사 ‘그녀’에 비해서 반응 시간이 빨랐으며, 대명사 성별단서와 정서적 평가의 이원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남성 대명사 ‘그’ 접화에서는 긍정단어가 부정단어보다 반응 시간이 빨랐지만 여성 대명사는 둘 간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대명사의 성별이 정서적 평가에 영향을 미쳤지만 비대칭적 관계에 있다. 참가자 성(남자)-대명사 성별(‘그’) 접화는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촉진되었지만, 참가자 성(여자)-대명사 성별(‘그녀’) 접화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참가자 성과 성별단서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성별 일치성 효과가 클 가능성을 보였다.

실험 1의 가설은 삼원상호작용을 예측하였지만 그 예측에는 변인들의 관계에 따라서 가변적일 가능성도 예견하였다. 그 가변성은 대명사 성별 즉 ‘그’가 ‘그녀’보다 빠른 현상과 무관하지 않았다. ‘남자-그-긍정’은 ‘남자-그-부정’보다 반응이 빨랐지만 ‘여자-그녀-긍정’은 ‘여자-그녀-부정’과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여자-그-긍정’이 ‘여자-그-부정’보다 반응이 빨랐다. 이는 참가자 성-성별단서-정서적 평가의 일치정보다는 대명사 ‘그’가 지니는 특성이 반응 시간에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명사 ‘그’와 ‘그녀’는 삼인칭 대명사로써 참가자 성과 정서적 평가에 대칭적인 표상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비록 국어에서 ‘그’와 ‘그녀’가 함께 사용되고 있고, ‘그’가 ‘그녀’에 비해서 사용 빈도의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지만 참가자 성에 따른 ‘그’와 ‘그녀’의 표상이 대칭적이지는 않았다. 이는 영어도 동

일하다. 비록 영어권에서 ‘he/she’가 문법적으로 성별을 표상하는 단서를 지닌다고 하지만 영어 사용자의 사회인지적 표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결과는 Banaji와 Hardin(1996)의 연구에서 보여준 참가자 성에 관계없이 남성 대명사가 여성 대명사보다 반응 시간이 빠른 것과 무관하지 않는다고 보겠다. 즉 두 언어는 공통적으로 남성 대명사가 여성 대명사보다 반응에 이점이 있다고 보겠다.

실험 2: SOA 1000ms조건

실험 1은 가설이 예측한 방향의 참가자 성, 대명사 성별단서, 그리고 정서적 평가의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단지 대명사 성별단서와 정서적 평가의 상호작용만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 상호작용 역시 참가자 성과 대명사 성별의 대칭적 상호작용은 아니었다. 그 상호작용은 대명사 ‘그’와 ‘그녀’의 비대칭적인 표상 효과가 작용된 결과이다. 즉 남성 대명사만이 정서적 평가의 일치성을 보인 것이다. 그러면 SOA를 조절하면 그 효과들이 어떤 변화가 관찰될까? 선행 연구에서 보면 SOA의 증가는 정서적 평가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결과들이 있었다(예; 이재호, 2012a,b). SOA의 증가가 참가자 성과 대명사 성별단서의 상호작용과 대명사 성별단서와 정서적 평가의 상호작용을 모두 사라지게 할 것인가? 실험 2는 SOA를 1000ms로 조작하였다. 이 조건은 참가자의 의식과 전략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활성화 촉진과 더불어 억제 과정도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이다(Neely, 1977; 1991). 과연 의식적 과정이 적용되는 조건에서는 실

험 1의 결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부록 1에 제시되었다.

방 법

참가자

계명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102명이 참가하였다. 이중 남자 학생은 35명이었으며, 여자 학생은 67명이었다. 모든 참가자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었으며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실험 점수를 부여하였다.

실험설계

독립변인은 참가자 성(남자, 여자), 대명사 성별(남성, 여성), 그리고 정서 수준(긍정, 부정)이었다. 참가자 성은 피험자 간 변인이었으며 대명사 성별과 정서 수준은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이 연구는 2×(2×2) 혼합요인설계가 적용되었다.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실험 1과 동일하며,

실험절차

실험 2의 절차는 대부분 실험 1의 절차와 일치하였다. 단지 점화-목표 단어의 SOA만 차이가 있었다. 실험 1은 SOA 150ms였지만, 실험 2는 점화 단어의 제시시간이 500ms였으며, 점화와 목표 단어의 지연 시간이 500ms였다. 즉 실험 2의 SOA는 1000ms로 조작되었다.

결과 및 논의

실험 2에서도 명명과제를 적용하여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반응시간이 250ms 이하인 반응과 표준편차 3이상인 1000ms 이상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은 전체 반응 2040개 중에서 18개 이었으며, 제외 반응은 전체 반응의 0.8%였다. 참가자 성, 대명사 성별, 정서 수준에 따른 목표단어의 명명시간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목표단어의 명명시간은 변량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명사의 성별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2. 참가자 성, 대명사 성별, 및 정서 수준에 따른 명명시간의 평균(ms)

참가자 성	대명사 성별	정서 수준	
		긍정 단어	부정 단어
남자	‘그’ 점화	463 (10.77)	472 (10.73)
	‘그녀’ 점화	478 (9.76)	474 (10.20)
여자	‘그’ 점화	487 (7.78)	492 (7.76)
	‘그녀’ 점화	491 (7.05)	503 (7.37)

()안은 표준오차

[$F(1,100)=9.47$, $MSe=630.03$, $p=.000$]. 대명사 ‘그’ 점화(478ms)가 ‘그녀’ 점화(486ms)에 비해서 8ms가 빨랐으며, 정서 수준의 주효과 또한 경계 수준을 보였다 [$F(1,100)=3.75$, $MSe=674.53$, $p=.055$]. 대명사 ‘그’ 점화(480ms)가 ‘그녀’ 점화(485ms)에 비해서 5ms가 빨랐다. 참가자 성과 대명사 성별의 이원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67)=2.89$, $MSe=721.37$, $p=.091$]. 남자 참가자는 ‘그’ 점화(507ms)가 ‘그녀’ 점화(519ms)보다 12ms 빨랐지만 [$t(66)=2.81$, $p=.006$], 여자 참가자는 ‘그’ 점화(514ms)가 ‘그녀’ 점화(519ms)보다 5ms 빠른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참가자 성, 대명사 성별 및 정서 수준의 삼원상호작용 또한 경계 수준에 이르렀다 [$F(1,100)=3.68$, $MSe=669.18$, $p=.058$]. 이 삼원상호작용의 경향성은 여자 참가자의 ‘그녀’ 점화에서 긍정 단어(491ms)와 부정 단어(503ms)의 차이에서 발생하였다. 즉 ‘그’ 점화는 긍정단어가 부정단어보다 12ms 빨랐지만, ‘그녀’ 점화는 둘 간의 차이가 없었다.

실험 2는 점화-목표의 SOA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변인들의 효과가 관찰되었다. 대명사 성별의 주효과와 정서적 평가의 경계 효과는 실험 1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독립변인의 삼원상호작용이 경계 수준에서 관찰되었다. 이 상호작용은 부분적으로 참가자 성(남자)-대명사 성별(‘그’)-정서적 평가(긍정)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참가자 성(여자)-대명사 성별(‘그녀’)-정서적 평가(부정)의 관계가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조건의 반응시간이 다른 조건의 반응시간보다 느렸다. 실험 2의 SOA가 1000ms임을 고려한다면 참가자 성(여자)과 성별단서(‘그녀’) 사이에 의식적 수준에서 정서적으로 억제 혹은 대비 과정이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다(이재호, 2012a, b).

종합 논의

이 연구는 두 실험에서 삼인칭 단수 ‘그’ 혹은 ‘그녀’의 사회인지적 표상의 성차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미 대명사는 언어적 의미는 없지만 문법적 단서만으로 단어 혹은 문장 간의 참조적 응집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이정모와 이재호, 2004). 특히 대명사의 성별단서는 글을 구성하는 어휘에 성별 속성을 포함하며 추론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사회인지 이론에서 개인의 성별은 사회적 정보이며 범주 표상에 자동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졌다(Banaji & Hardin, 1996; Cacciari & Padovani, 2007). 사회적 정보의 자동성에는 정서적 표상이 포함되며 사회인지 이론들은 그 표상 차원을 ‘개인-집단-정서’ 표상으로 개념화하였다(예; Greenwald, et al., 2002).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인지의 균형-일치적 표상은 ‘자신-집단-긍정 평가’로 구성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사회 정보가 인지적 처리를 위한 단서로 작용한다고 가정하면 두 성별단서의 문법적 단서는 ‘그-남성’과 ‘그녀-여성’으로 표상된다고 보겠다. 삼인칭 대명사를 사회인지 표상에 적용하면 자신(성)-집단(성별)-속성(긍정)의 기본적 표상을 가정할 수 있다. Banaji와 Hardin(1996)의 성별단서의 자동적 점화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명사의 성별과 점화자극의 의미적 일치성이 자동적인 점화효과를 제공함을 보였다.

선행 연구의 성별단서의 의미적 일치성 효과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참가자 성(sex)과 대

명사 성별(gender), 그리고 정서적 평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인지의 균형-일치성 효과가 적용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정서적 평가의 효과는 명명과제와 SOA를 적용하는 조건을 조작하여 그 민감성을 높이고자 하였다(예; Bargh, 1992; 1996). 실험 1은 참가자 성별과 대명사 성별의 상호작용이 경계 수준에서 관찰되었다. 즉 남자 참가자는 여성 대명사보다 남성 대명사에 대한 명명시간이 빨랐고, 여자 참가자는 둘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대명사 성별과 정서 단어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남성 대명사는 긍정 단어가 부정 단어에 비해서 반응이 빨랐지만 여성 대명사는 둘 간의 차이가 없었다. 이런 현상이 매우 짧은 SOA(150ms)와 명명과제에서 관찰되었다(예; De Houwer, Hermans, & Spruyt, 2001). 실험 2는 긴 SOA(1000ms)에서 실험 1의 독립변인의 효과를 관찰하였다. 대명사 성별과 정서적 평가의 주효과는 실험 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복잡한 상호작용효과의 경향성이 추가로 관찰되었다. 참가자 성, 대명사 성별, 및 정서적 평가의 삼원상호작용이다. 이 상호작용의 근원은 참가자가 여자이며 대명사의 성별이 여성인 조건에서 제시된 부정단어의 반응시간이었다.

대명사 성별과 정서적 평가의 상호작용

이 연구의 주요 예견과 결과의 요약이 표 3에 제시되었다. 사회인지의 균형-일치성 이론과 Banaji와 Hardin(1996)의 성별 일치성 효과를 종합하면 참가자 성, 대명사 성별, 및 정서적 평가의 삼원상호작용이 예견될 수 있다. 그러나 실험 1은 대명사 성별의 주효과 즉 ‘그’가 ‘그녀’보다 반응시간이 빨랐다. 참가자의 성은 반응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대명사의 성별과 정서적 평가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이 상호작용은 대명사 ‘그’로 인해 발생하였다. ‘그-긍정’ 조건이 다른 조건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빨랐다. 긍정 단어의 조건에서 보면 ‘그’가 ‘그녀’보다 긍정적 평가에 민감하였다. 반면에 부정 단어의 조건에서는 두 대명사의 차이가 없었다. 삼인칭 대명사는 자신-타인의 범주에서 보면 타인에 해당하지만 집단 수준에서는 내집단이나 외집단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즉 ‘나-그’를 비교하는 조건에서는 자신-타인의 범주에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면 ‘나’에 비해서 ‘그’는 긍정과 부정 정서에 대한 평가가 모두 대명사 ‘나’에 비해서는 미약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이재호(2012a,b)는 ‘나’ 혹은 ‘너’의 대명사가 정서 단어와 상호작용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그’는 남

표 3. 참가자 성, 대명사 성별, 및 정서적 평가의 이론적 예측 및 실험 결과 비교

조건	참가자 성	점화조건	목표조건: 정서적 평가		
		대명사 성별	균형-일치성 이론	실험 1 (150ms)	실험 2 (1000ms)
1	남자	남성(‘그’)	긍정 < 부정	긍정 < 부정	긍정 = 부정
2	남자	여성(‘그녀’)	긍정 > 부정	긍정 = 부정	긍정 = 부정
3	여자	여성(‘그녀’)	긍정 < 부정	긍정 = 부정	긍정 < 부정
4	여자	남성(‘그’)	긍정 > 부정	긍정 < 부정	긍정 = 부정

성을 ‘그녀’는 여성을 의미지만 ‘나’와 ‘우리’ 처럼 자신을 반드시 포함하는 단서는 없다고 보겠다. 성별단서의 효과는 참가자 ‘자신’의 성과 대명사의 성별이 일치되는 조건에서 정서적 평가에 작용한다고 보겠다. 그러나 표 3에 보였듯이 실험 1에서 얻어진 조건 1의 ‘남자-남성(‘그’)-긍정’ 표상은 균형-일치성 이론의 예측과 일치한다. 반면에 나머지 조건들은 균형-일치성 이론의 예측에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여자-남성(‘그’)-긍정’의 표상이다.

먼저 대명사의 유형이 반응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대명사 ‘그’가 ‘그녀’보다 반응시간이 빨랐다. 이는 Banaji와 Hardin(1996)의 의미적 일치성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다. 참가자는 성에 관계없이 접화 명사의 성별과 무관하게 ‘he’가 ‘she’보다 빠른 반응을 보였고, 과제나 명사의 성별 강도에 따라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였다. 비록 이 주효과는 이원상호작용으로 재해석될 수 있지만 한국어와 영어의 대명사가 지니는 언어적 특성으로도 해석된다. 즉 두 언어에서 모두 남성 대명사(‘그’ 사용빈도 14058/300만 어절)가 여성 대명사(‘그녀’ 사용빈도 3767/300만 어절)에 비해서 사용 빈도가 높다. 그러나 빈도 순위는 각각 13위, 72위이다(김한샘, 2005). 영어도 각각 9위, 32위이다. 단어 빈도가 다른 요인의 상호작용이 없다면 반응시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명사 성별과 정서적 평가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이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그’가 ‘그녀’에 비해서 긍정 단에 대한 반응시간이 빨랐다. 두 단어만을 비교하면 ‘그’가 ‘그녀’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함의한다고 보겠다. 반면에 부정적 평가는 두 대명사의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두 대명사에 대한

부정적인 억제 효과는 없다고 보겠다. 이런 상호작용은 대명사의 사용 빈도만이 반응시간에 작용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두 단어 모두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단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대명사 사용의 사회적 변화 효과

실험 1에서는 참가자 성의 효과나 상호작용은 없었지만, 대명사의 성별 평가의 표상이 남녀가 동일하였다는 점이다. 즉 대명사의 성별단서가 참가자의 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평가적으로 표상된다고 보겠다. ‘남자-남성-긍정’은 균형-일치성 이론에 일치하지만 ‘여자-남성-긍정’은 균형-일치성 이론에 대비되며 Banaji와 Hardin(1996)의 성별 일치성에도 대치된다. 이런 결과의 한 가능성은 언어의 역사적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어나 영어는 초기에는 대명사의 성별표지가 없었다. 한국어의 대명사는 ‘이-그-저’이다. 이들 대명사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지칭하는 혹은 성별을 구분하는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였다. 굳이 성별을 표현할 때에는 ‘그 사람’, ‘그이’, ‘그분’, ‘그 여인’ 등으로 사용하였다. 언어의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그’가 ‘그녀’보다는 사용상의 이점이 있다고 보겠다. 참가자의 성효과는 없지만 자신-범주의 일치성 원리에서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는 자신의 성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 성별 표상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겠다. 언어와 사고의 상호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래에 영어는 문법적 성별표지를 없애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he/she’를 성별단서로 사용하기 보다는 중성 대명사로 사용하고자 하며, ‘they’도 중성 단수 대명사로 사용하기도 한다(예; Baranowski, 2002).

성별단서와 정서적 평가의 상호작용은 자동적이며 암묵적인 조건에서 관찰된 결과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Klauer, et al., 1997; 이재호, 2012a,b) 정서적 평가의 효과는 자동적인 수준에서만 관찰되고 의식이 작용되는 시점에서는 그 효과가 약화되거나 사라질 것을 예측하였다. 실험 2는 대명사 성별 변인의 주효과가 실험 1과 동일하게 관찰되었고 참가자 성, 대명사 성별, 그리고 정서적 평가의 삼원상호작용이 경계 수준에서 관찰되었다. 이 상호작용은 여자 참가자의 여성 대명사의 정서적 평가 조건이 작용한 것이다. 다른 조건에서는 정서적 평가의 긍정-부정의 차이가 사라졌지만 이 조건에서 긍정과 부정의 반응 시간 차이가 관찰되었다. 긍정단어의 반응보다는 부정단어의 반응이 느렸다. 남자는 자신의 성과 사회적 표상의 일치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며 그 과정은 자동적 수준이나 통제적 수준에서 일관되었다. 반면에 여자는 그렇지 않았다(MacLeod, 2007; Neely, 1977; 1991).

참가자 성과 의식 수준의 상호작용: 여자의 부정적 억제 효과

사회인지의 균형-일치성 이론은 ‘자신-집단-긍정 평가’를 기본적인 표상으로 간주하였다(예; Greenwald, et al., 2002). 이를 삼인칭 대명사의 성별단서에 적용하면 남자는 ‘자신(남자)-성별범주(남성)-긍정 축진’의 표상을 형성하지만 여자는 ‘자신(여자)-성별범주(여성)-부정 억제’의 표상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남자는 성별에 대한 표상을 의식 수준에 일치된 방식으로 표상하지만 여자는 성별에 대한 자동적 수준과 의식적 수준이 해리된 표상을 형성한

다고 보겠다. 즉 남자는 남성 대명사에 대한 반응이 여성 대명사나 의식 수준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겠다. 반면에 여자는 비록 언어적 단서가 여성을 지칭하더라도 여성 대명사가 부정 정서와 연합되는 조건에서 강한 억제 효과를 일으킨다고 보겠다.

그러면 참가자의 성, 남자와 여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남자는 언어적 성별단서에 일치하는 표상을 형성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성과 언어적 성별단서가 일치하지 않는 표상을 형성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명사의 성별단서 자체가 대칭적이지 않다. 애초 한국어의 대명사는 ‘이-그-저’이다. 한국어는 애초부터 대명사에 성별단서가 없었다. 이는 영어도 마찬가지다. 어느 시점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한국어에 ‘그녀’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대명사에 성별표지(gender marking)가 생긴 것이다(이정모와 이재호, 2004). 즉 남자와 여자는 정체성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언어는 인지적 표상을 형성하는 상징이다. 비록 언어적 단서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지만 여자는 ‘그’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으며 ‘그녀’의 표지가 정서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겠다. 언어의 성별이 처음부터 ‘그남’ 혹은 ‘그녀’로 구분되었다면 ‘남자’ 혹은 ‘여자’는 자신의 성에 일치하는 성별단서를 긍정적으로 표상하고 불일치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상하여 균형-일치성 이론의 적용이 가능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애초 ‘그’는 대명사 혹은 지시사로 성별 중성적인 단서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남자는 ‘그’의 중성적 혹은 남성적 표상에 대해서 불일치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여자는 언어적 단서와 성별 정체성에 대한 표상의 불일치를 경험한 것이다.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에서 언어가 지니는 의미

나 문법에 근거한 표상을 수동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참가자 성과 성별단서의 표지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혹은 부정적인 정서는 균형-일치성 원리에 근거해 볼 때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 표상이 의식적으로 지연된 억제 현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험 2의 ‘여자-여성-부정’의 표상이 그것이다.

사회인지의 균형-일치성 이론은 ‘자신-집단-정서’의 다원적 표상을 강조하였고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지만 이 연구는 언어가 지니는 어휘의 문법 체계가 자신의 지식 체계나 정서 체계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언어의 의미적 일치성에 더하여(Banaji & Hardin, 1996) 정서적 일치성은 자신의 표상에 긍정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겠다. 언어는 개인의 심적 모형을 구성하는 중요한 차원이며 표상 체계이지만 이들 표상도 사회나 문화의 체계 속에서 역동적이며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이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김한샘 (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서울: 국립국어원.
- 이재호 (2006).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과 자동적 점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 41-61.
- 이재호 (2012a). 대명사 ‘나’와 ‘너’의 사회인지적 표상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 261-278.
- 이재호 (2012b). 인칭 대명사 ‘나’와 ‘너’의 평가적 표상 차이. 인지과학, 23, 323-348.
- 이재호, 김성일 (1998). 언어 이해과정의 연구 방법. 이정모, 이재호 (편), 인지심리학의 제 문제 II: 언어와 인지 (155-182쪽). 서울: 학지사.
- 이재호, 방희정 (2003).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 성별의 속성 전형성과 집단 일치성의 점화효과. 인지과학, 14, 37-48.
- 이재호, 이정모 (2000). 개념 지식의 유형에 따른 표상 차이: 범주와 각본의 위계성과 전형성 비교. 인지과학, 11, 73-81.
- 이정모, 이재호 (2004). 담화글의 이해과정: 대명사 참조해결의 성별 표지와 초점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16, 151-168.
- Aidman, V. A., & Carroll, S. M. (2003). Implicit individual differences: Relationships between implicit self-esteem, gender identity, gender attitud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7, 19-37.
- Banaji, M., & Hardin, C. (1996). Automatic stereotyping. *Psychological Science*, 7, 136-141.
- Baranowski, M. (2002). Current usage of the epicene pronoun in written English. *Journal of Sociolinguistics*, 6, 378-392.
- Bargh, J. A., Chaiken, S., Govender, R., & Pratto, F. (1992). The generality of the automatic attitude activa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893-912.
- Bargh, J. A., Chaiken, S., Raymond, P., & Hymes, C. (1996). The automatic evaluation effect: Unconditionally automatic attitude activation with a pronunciation task.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 104-128.
- Blair, I. V., & Banaji, M. R. (1996).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 stereotype priming.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142-1163.
- Blanton, H., & Stapel, D. A. (2008). Unconscious and spontaneous and ... complex: The three selves model of social comparison assimilation and contr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 1018-1032.
- Cacciari, C., & Padovani, R. (2007). Further evidence on gender stereotype priming in language: semantic facilitation and inhibition on Italian role nouns. *Applied Psycholinguistics*, 28, 277-293
- Collins, A. M., & Loftus, E. E. (1975). A spreading-activation theory of semantic processing. *Psychological Review*, 82, 407-426.
- Cvencek, D., Greenwald, A. G., & Meltzoff, A. N. (2012). Balanced identity theory: Evidence for implicit consistency in social cognition. In Gawronski, B., & Strack, F. (Eds.), *Cognitive consistency: A unifying concept in social psychology* (pp.157-177). New York: Guilford Press.
- De Houwer, J., Hermans, D., & Spruyt, A. (2001). Affective priming of pronunciation responses: Effects of target degrad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85-91.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Fazio, R. H., & Olson, M. A. (2003). Implicit measures in social cognition research: Their meaning and u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297-327.
- Fazio, R. H., Sanbonmatsu, D. M., Powell, M. C., & Kardes F. R. (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 Glaser, J., & Banaji, M. R. (1999). When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 Reverse Priming in automatic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669-687.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G., Banaji, M. R., Rudman, L. A., Farnham, S. D., Nosek, B. A., & Mellott, D. S. (2002). An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 3-25.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Housley, M. K., Claypool, H. M., Garcia-Marques, T., & Mackie, D. M. (2010). "We" are familiar but "It" is not: Ingroup pronouns trigger feelings of familiar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114-119.
- Klauer, K. C., Rossnagel, C., & Musch, J. (1997). List-context effects in evaluative prim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3, 246-255.
- Kunda, Z. (2000). *Social cognition: Making sense of people*. Cambridge, Mass.: MIT Press.
- Lee, J-M., & Lee, J-H. (2005). Contrast information processing in discourse comprehension.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16, 69-92.
- Macrae, C. N., & Bodenhausen, G. V. (2000). Social cognition: Thinking categorically about

- oth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93-120.
- Martindale, C., & Moore, K. (1988). Priming, prototypicality, and prefere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14, 661-670.
- MacLeod, C. M. (2007). The concept of inhibition in cognition. In D. S. Gorfein and C. M. MacLeod (Eds.), *Inhibition in cognition* (pp. 3-2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edin, D. L., Lynch, E. B., & Solomon, K. O. (2000). Are there kinds of concep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121-147.
- Musch, J., & Klauer, K. C. (2003). *The psychology of evaluation*. Hillsdale, NJ: Erlbaum.
- Neely, J. H. (1977). Semantic priming and retrieval from lexical memory: Roles of inhibitionless spreading activation and limited-capacity atten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6, 226-254.
- Neely, J. H. (1991). Semantic priming effects in visual word recognition: A selective review of current findings and theories. In D. Besner & G. W. Humphreys (Eds.), *Basic processes in reading: Visual word recognition* (pp.264-336). Hillsdale, NJ: Erlbaum.
- Perdue, C. W., Dovidio, J. F., Gurtman, M. B., & Tyler, R. B. (1990). Us and them: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process of inter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475-486.
- Rudman, L. Greenwald, A., & McGhee, D. (2001). Implicit self-concept and evaluative implicit gender stereotypes: Self and ingroup share desirable trait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164-1178.
- Schilling, H. E. H., Rayner, K., & Chumbley, J. I. (1998). Comparing naming, lexical decision, and eye fixation times: Word frequency effects and individual differences. *Memory & Cognition*, 26, 1270-1281.
- Spruyt, A., Hermans, D., De Houwer, J., & Eelen, P. (2004). Non-associative semantic priming: Episodic affective priming of naming responses. *Acta Psychologica*, 116, 39-54.
- Stapel, D. A., & Koomen, W. (1998). When stereotype activation results in (counter) stereotypical judgments: Priming stereotype-relevant traits and exempla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4, 136-163.
- Stapel, D. A., & Winkielman, P. (1998). Assimilation and contrast as a function of context-target similarity, distinctness, and dimensional releva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634-646.
- Zwaan, R. A., & Radvansky, G. A. (1998). Situation models in language comprehension and memory. *Psychological Bulletin*, 123, 162-185.

1차원고접수 : 2014. 08. 10.

수정원고접수 : 2014. 11. 03.

최종게재결정 : 2015. 01. 22.

Social-Cognitive Representations for Pronoun's Gender Cue

Jae-Ho Lee

Keimyung University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xplore the interaction of participant's sex (male and female), personal gender pronoun (e.g. 'he' and 'she') and emotional evaluation (e.g. positive and negative). Using time-course approach (e.g. SOA 150-1000ms) and primed naming task,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were presented personal pronoun as primes at SOA 150ms and were asked to respond emotional words which were different in emotional attribut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in effects of personal pronoun were observed and the main effects of emotional words were observed marginally and the interaction effects of personal pronoun and emotional words were also observed. In Experiment 2, Participants were presented personal pronoun as primes at SOA 1000ms and were asked to response emotional words which were differed in emotional attribut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in effects of personal pronoun and emotional words were observed marginally, and the three way interaction effects of participant's sex, personal gender pronoun and emotional words were observed marginally. Two experiments suggested that male pronoun 'he' has positive facilitation effect for emotional evaluation at short SOA, whereas female pronoun 'she' has negative inhibition effects at long SOA only for female participants.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from a point of view of dynamic processes of social cognition for gender.

Key words: participant's sex, personal gender pronoun, priming effect, social cognition, emotional evaluation

부록 1. 실험 1과 2에서 사용된 접화와 목표 단어

	접화단어		목표단어					
	그-접화	그녀-접화	긍정	빈도	평가	부정	빈도	평가
1	그	그녀	배려	75	1.2	독선	13	4.3
2	그는	그녀는	성실	19	1.6	허풍	9	4.6
3	그를	그녀를	사랑	1424	1.3	잔인	86	4.9
4	그의	그녀의	애정	221	1.4	질투	46	3.8
5	그처럼	그녀처럼	건강	242	2.1	허약	46	3.1
6	그와	그녀와	부모	617	1.5	조폭	1	4.5
7	그만	그녀만	천사	80	1.6	악마	56	4.6
8	그도	그녀도	스승	131	1.8	간첩	63	4.2
9	4.2	그녀뿐	나비	100	2.7	거미	32	3.1
10	그에게	그녀에게	간호	17	2.6	강도	59	4.6

* 빈도는 300만 어절이며(김한샘, 2005), 평가는 5점 척도